

## 소프트엑스포 및 디지털 콘텐츠 페어 2003 개막행사 참관

### IT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은 차세대 동력의 기반

관심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걸고, 부탁드립니다 싶어 왔습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만들고 동영상 보고가 있고 그 다음 저더러 말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간략하게 보고했습니다. 아마 복잡하게 보고하면 오히려 다 아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면 번거로운 것 같아 짤막하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내가 안 오면 진 장관이 주빈으로 혼시 적으로 말씀하고 내려갔을 텐데, 대통령은 옛날 장관보다 위엄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94년 업무관리통합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했는데, 하는 동안 기술이 발전해 펍스에서 그룹웨어로 확장하고 다 만들어 가니까, 그룹웨어 그 다음에 인트라넷 버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700만원 예상으로 시작했는데 어렵 없다는 알게 되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정치 또는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일정, 과제 그다음 인재DB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 목표는 당의 정책위의장이 되는 것이었는데, 정책고객관리를 해보자는 것이 개발의 목표였습니다. 적용도 못해보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개발한 것이 아깝고 했는데, 결국 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품화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생명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수

업료를 비싸게 내고 수업을 들으면서 소프트웨어 시장의 속성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구현 기능이 아까웠습니다. 패키지 상품으로 나오는 아웃룩 등 몇 가지가 있던데, 특정상품에 대해 얘기해 미안한데, 그때 애써 요구사항을 구현해왔던 것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놀란 것은 아마추어 개발자가 실제로 한국의 대학교에서 취미로 하던 아마추어개발자가 아웃룩에서 구현하던 것을 모든 요구들을 다 구현해 주었습니다.

좀 좋지 않은 애긴데, 감을 보내던 명부 가운데, 설에 보낼 명부는 좀 다릅니다. 그 명부에서 가을에 보낸 사람을 배제하고 적출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복되는 명단을 뽑아 내야 되는데 그 명령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한국 아마추어 수준의 개발자가 다 구현했습니다. 자주 쓰이는 일이 아니어서 상용화되거나 발전하지 않았으나, 그 일을 보고 한국 인재의 우수성에 대해 확신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만한 사회적 여건과 시장,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해 세계일류, 세계를 석권하지 못할 뿐이지, 그야말로 한국 젊은 일꾼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청와대에서 업무관리 프로그램을 직접 지시해 받주었습니다. 지금 베타버전입니다. 1차 나온 것을 시정하고 있습니다. 제 주문이 까다로워, 그야말로 일류업체인데도 불구하고 헛갈려하고 제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소프트웨어 지식이 부족해서 충분히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귀는 당신들이 알아들어야지 나는 잘 모르니까 당신들은 전문가인데……. 그게 완성되면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하나하나 프로젝트를 한눈에 관저에서도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갑니다.

정통부에서 개발한 것 보다 더 우수할 것입니다. 나중에 경쟁 한번 해봅시다. 이때 열심히 하십시오. 잘 아는 대통령이 있을 때에 필요한 조건과 요구를 내놓으면 최대한 들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들 믿고, 국민소득 2만 불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만 불인데 수출 2,000억불하고 있는데 4,000억불 가야합니다. 가야하는데, IT부분이 절반이 훨씬 넘을 텐데, 소프트웨어가 절반해 주십시오.

정통부장관이 2007년도 천 억 불 목표를 내세웠는데, 2007년에 천 억 불을 가면 우리 수출의 3/1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2/1까지 2010년까지 목표를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목표가 2012년까지 이 만 불까지 가는 것인데 앞서가는 선두 그룹이 2008년 2만불 수준이 되어야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부분도 있고 하니 2010년쯤 2만 불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2012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2010년에 갔으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IT 부분이 2008년까지 2만 불을 달성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머지 부분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정통부장관이 보고했는데 기술발전과 인재양성을 아마 첫 번째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산업보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적 뒷받침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창출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필요한 부분에 시장을 창출해 거기에서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시장창출도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해외시장도 정통부장관이 할 텐데 적극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분야에 있어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믿어주겠습니다. 정책은 제가 책임질 테니 2만 불 시대는 여러분이 책임져 주십시오. 함께 해봅시다.